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음 9월 7일) 제21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상하는 전북... 하나되는 대한민국... 희망의 폭죽을 높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지난 12일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 메인무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개막식을 축하하는 폭죽이 터지고 있다. (사진 왼쪽) 이날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손을 흔들며 선수단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있다.

전국체전 개막... 열전 돌입

익산 종합운동장서 개회식
전북 선수단, 종합 3위 목표
이 총리, 전북에 애정 표명도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개막된 이번 대회는 올해로 99회째를 맞았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각 지역 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체육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생동하는 전북의 꿈, 하나되는 한국의 힘'을 표어로 펼쳐진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인 해에 열리는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천년 전북의 역사와 정신이 함축된 대서사시가 선보였다. 사전행사에서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백제 금동 풍탁을 활용한 카운트다운 쇼와 김용

택, 윤점용, 왕기석 등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의 흥을 돋웠다. 공식행사는 귀빈입장,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기 게양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성화점화는 전북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전북교육청·전북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약 3만명이 참가, 기량을 겨룬다. 총 47개 종목이 전북지역 70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성적 3위를 목표로 선수와 임원 등 총 1725명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폐회식은 오는 18일 오후 5시30분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낙연 총리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힘써준 전북도민, 특히 익산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체전이

선수발굴하고 육성한 덕분"이라며 "이번 대회에서도 스포츠 영웅이 탄생할 것이며 선수 한명 한명이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북에 대한 애정도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전북도민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고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산에 지원을 계속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어 1조1000억원 출자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고속도로 등에 사상 최대 예산 투입하고 있다"며 "세계잡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전북과 충실히 공조하고 있다. 전북이 비상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한국이 되길 빌겠다"고 역설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은 이번 체전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맘껏 펼치고 국민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전북을 방문한 선수단을 환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도민과 특히 익산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성공 체전을 기원했다. /정은성 기자

"전라선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시급"

전주 포함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 정부에 공동건의문 제출
"2016년 12월 개통 예정 수서발 SRT 운행 무산에 지역민 한숨"

수서발 전라선 SRT운행이 단 한편도 운행되지 않고 있어 전라도민들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선 권역의 7개 자치단체가 정부에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채택된 공동건의문에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수서발 SRT 전라선 운영 △경전선(광양~진주)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라선권 7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전라선권 KTX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라선(익산~여수간) 주변에는 전주한옥마을과 여수세계엑스포장, 남일 춘향테마파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들이 위치해 있어 기차 여행객이 꾸준히 늘고있는데도 전

라선은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저속 전철 수준이다"며,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은 전폭적인 증편이 이루어진 반면, 전라선은 왕복 8회 증편에 그치고 말았고 그마저도 수서발 SRT는 운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 목적이 고속철도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인 만큼 그 혜택을 전라선 이용객이 받지 못하는 상황은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동안 전북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라선 이용객 증가를 근거로 수서발 SRT 노선과 전라선을 연계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 철도선로배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라선 KTX 운행횟수를 8회 증편한데 그치고 그해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전라선 운영은 무산시켜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산 바 있다. 이에, 전북도와 전주시, 전라선권 시장·군수들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수서발 SRT 노선에 전라선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논리 개발에 힘써왔다. 이번 건의안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권역에는 대한민국 핵심 관광거점이 집중돼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소외되고 개통 후 2년이 경과한 수서발 SRT도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은 이동권, 즉 교통수단이다. 철도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시설인 만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종이의 유산을 찾아 "인네의 일기" 편

“종이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

"Papier als ein Mensch Sie hängen besser dran."

— <인네의 일기> 출판사 프랑크(1929-1945)

어두운 공간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어린 소녀가 붙잡은 이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종이에 절박하게 남겼던 그녀의 바램이 이 세상에서는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유! 양심! 평화! ... 또한 우리 모두도 종이에 기록을 남기며, 종이 유산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만나며, 더 깊고, 더 따뜻한 감성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국 최초 종이 회사 - PAPER COREA www.papercorea.co.kr